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와 지역통합, 에스닉 : 파라과이의 사례*

구 경 모 (부산외국어대학교)
(gmgu@bufs.ac.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라는 흐름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에스닉의 부활과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두면서 라틴아메리카, 특히 파라과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에 주목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좌파 정부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에스닉 문화가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 강화 현상과 에스닉 문화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파라과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에스닉과 근대국가 시스템, 초국가주의에 입각한 지역 공동체라는 세 개의 층위가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복잡다단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에 속한 파라과이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는 지역 통합내의 각 국가들이 에스닉 자원을 활용하여 각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라틴아메리카적 민족주의가 재탄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민족주의, 라틴아메리카, 에스닉 문화, 파라과이, 과라니

*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A00003)

I. 서론

세계화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민족주의를 케케묵은 구시대의 유물 혹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모더니즘 계열(포스트모더니즘 포함)의 민족주의 이론가들은 근대국가 형성 도구로서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논의를 확장한다면, 민족주의는 근대국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허구이며 국가 폭력이나 억압, 대규모학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등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으로서 이해된다. 나아가 민족주의는 국가권력의 '시녀' 혹은 사회적 소수자를 억압하는 도구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해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족주의 연구의 주류¹⁾도 이런 모더니즘 계열의 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이 실체가 있는가 아니면 허구인가에 대한 논쟁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왜 민족주의가 다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각 지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틀로서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

모더니즘 계열 학자들의 주장처럼, 국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대내외적으로 무분별한 '민족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될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민족 혹은 에스닉들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한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에스닉²⁾들의 독립 투쟁을 단지 '민족적 상상력'을 가진 집단들의 국수주의로만 매도 할 것인가?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 우후죽순처럼 각 에스닉들이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예가 바로 2014년 9월에 실시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투표다. 지금 유럽에서는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포함해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바스크,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베네토, 프랑스의 코르시카와 브리타뉴, 벨기에의 플랑드르, 독일의 바이에른과 프리슬란트 등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독립의 불씨가 잠재하고 있다.

1)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이 허구하라는 개념으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임지현(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저역서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2) 이 글에서 에스닉(ethnic)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nation)이 아니라, 소위 종족으로 번역되는 집단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닉이 부족 혹은 원주민 등의 전근대적인 집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및 언어,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포괄한다. 예컨대 스코틀랜드의 켈트나 스페인의 바스크나 카탈루냐도 에스닉이다. 에스닉은 국가 경계와 일치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 내에 복수로 존재하기도 한다. 흔하지 않지만, 중동의 투르크족 처럼 여러 국가에 걸쳐 거주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에스닉은 주로 원주민 집단을 일컬으며, 때로는 이민자 집단(메노파, 레바논계, 한국계, 일본계 등)도 포함된다. 에스닉에 대한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학계에서 민족과 종족, 때로는 소수민족이라는 용어로 혼재되어 통용하고 있어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영어식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언론에서는 심지어 과거 멕시코 영토였던 미국의 텍사스 지역도 분리 청원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민족 분쟁이 끊이지 않는 동유럽과 중국, 아프리카, 중동지역까지 포함하면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민족들의 목소리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위에 그쳤지만 그렉시트와 EU 탈퇴를 결의한 브렉시트 현상 모두는 199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경계 허물기로 대변되던 초국가주에 대한 본격적인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이러한 민족주의 강화 현상은 2008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신민족주의’라는 표현으로 지적된 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화의 당위성을 주장한 토마스 프리드먼(2005)의 “세계가 평평하다”는 말을 빗대 “세계가 더 이상 과거처럼 평평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반세계화적인 경향인 무역장벽 등 국가 권력의 강화로 해석하였다.³⁾

세계금융위기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각 국가의 경계, 즉 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이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의 석유자원을 놓고 영국과 대립중이며, 역내의 모든 국가에게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보호무역 정책과 석유회사의 국유화를 발표하였다. 파라과이도 예외는 아닌데, 2008년에 집권한 좌파 성향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은 인근 국가와의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표명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판매하는 이파이푸(Itaipú)댐과 자시레타(Yacyretá)댐의 전력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다.

이렇듯 각 국가들은 천연 자원 국유화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데, 소위 ‘좌파 정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거세지고 있다.⁴⁾ 또한 페루와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 등 에스닉의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각 국가내의 다양한 에스닉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복수민족주의(Plurinacionalismo)를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과거 군부독재시절과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3)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84872.html (검색일 2016.9.10)

4)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Maduro)를 위시한 여당의 선거 패배와, 2015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우파인 마크리(Macri)의 당선, 2016년 9월 브라질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eff)의 탄핵 등 부침을 겪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좌파의 아이콘인 룰라(Lula) 전 대통령이 최근 차기 대통령 선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의회 권력은 여전히 좌파 성향의 야당이 장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좌파 정부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민족주의 흐름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달리 유럽에서 불고 있는 민족주의는 불황에 따른 반이민적인 경향⁵⁾, 즉 유럽에서 다수의 이민자를 형성하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경계로 시작되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반세계화 경향은 초국가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반기입에 틀림없다. 이를 추동하는 정치 세력은 극우주의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유럽의 민족주의는 ‘우파 민족주의’로 이해할 수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불고 있는 민족주의는 ‘좌파 민족주의’로 비견 될 수 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주의가 부각되는 양상은 다양하지만, 그 화두는 에스닉의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근대 이후의 민족주의는 국가 경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지만, 21세기의 민족주의는 에스닉 단위로 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에스닉적 요소로 인해 국가 경계 혹은 지역 통합이 약화 혹은 강화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은 에스닉들이 근대 국가 시스템에서 탈피하고자 하며, 때로는 지역 통합에서 벗어나고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한 국가내의 다양한 에스닉을 인정하는 복수민족주의를 통해 근대 국가 시스템을 굳건히 하며 지역통합에서도 에스닉의 문화적 요소를 통해 결속을 다지기도 한다.

즉 ‘21세기 민족주의’는 에스닉과 국가, 지역 통합체가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각 대륙과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주의 연구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공해주며 지역 연구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에스닉 문화가 민족주의 강화에 어떻게 동원되는가를 파라과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에스닉과 국가, 지역 통합체 사이에 벌어지는 다층적인 민족주의 현상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파라과이는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98%에 이르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원주민 언어인 과라니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과라니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상의 에스닉 문화가 어떻게 민족주의로 표출되는가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5) 2008년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들이 발효한 부르카 금지 법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Ⅱ.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 분석 틀

1. 기층문화로서 에스닉 문화

기층문화는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일반화되고, 수세대에 걸쳐 전승된 문화로서 민족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Dorson 1973). 지금의 라틴아메리카의 기층문화는 칸클리니(Canclini 1990)가 지적했듯이 원주민과 아프리카의 흑인, 유럽의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혼종문화(hybrid culture)가 정체성이지만, 그 혼종 문화의 바탕에 원주민 문화가 기저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원주민이 사라진 자리를 흑인 노예들로 채운 카리브해 군도의 국가들과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원주민들 말살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예외적이다.

라틴아메리카를 위시하여 전 세계의 에스닉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국가라는 시스템, 즉 민족이라는 만들어진 집단 안에 포함되면서 차별을 받아왔다.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무시된 상태로 한 국가의 시민사회에 편입되도록 강요받았다. 실제로 에스닉들은 국가 통합과정에서 그들의 언어와, 종교, 예술, 음식, 의복 등 맘대로 선택할 권리도 없이 지속적인 차별을 경험하였다. 그들이 평등한 국민 혹은 시민으로 법과 제도로 승인받았다 할지라고 문화적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업보였다. 최근의 에스닉 정체성 찾기는 바로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원초주의적인 입장과 결부하여 에스닉 집단조차도 에스닉적 특성을 지닌 민족주의 집단인 것처럼 여기고 경계 하였다. 이들은 에스닉 집단과 에스닉처럼 구는 집단, 근대민족국가에 대한 구분에 인색하였다. 에스닉은 근대이후 가장 민주적인 시민사회에 대척점에 있는 집단들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전근대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면서 깔끄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극우적인 민족주의의 추종자들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유럽에서 극우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은 국가의 틀로서 내부 구성원을 국민과 시민이라는 단일 정체성, 즉 하나의 민족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위 자신들의 국민과 민족인 영국인과 프랑스인, 독일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이민자들과 종교집단들을 배척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럽 각처에서 들끓고 있는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유럽의 극우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문화적 전통 혹은 에스닉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도하면서 에스닉적인 정체성을 민족주의의 병폐로서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근대 국가 이후 발생한 민족주의의 병폐이며, 또한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통합 및 자유무역에 의해 경제적 위협을 받으면서 이민자들의 에스닉적인 특징을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많은 에스닉 집단들은 근대국민국가 성립과정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소수자로서 끊임없이 차별을 견뎌냈거나 사라졌다. 즉 에스닉은 근대국민국가 탄생의 피해자이며 희생양이다. 근대국민국가의 엘리트들은 통합을 목적으로 에스닉의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서로 다른 에스닉의 역사를 하나의 국가 경계 영역에 묶어놓고 예전부터 하나의 국가였던 것처럼 보이도록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물관이며 역사 교과서 일 것이다. 근대국가의 파생물인 민족주의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통일된 에스닉처럼 여기도록 한 국가 권력, 그것을 통해 민중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 문제이지, 에스닉의 정체성을 민족주의와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이 같은 민족주의 연구의 지적 흐름은 두 가지의 단절을 가져왔다. 그 중 하나는 민족주의가 근대적 산물로서만 인식한 나머지 그 이전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간과되었다. 소위 말하는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족주의는 근대에 본격적으로 탄생되었지만, 그것이 탄생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근대국민국가와 유사한 형태의 집단들이 모이고 헤치는 과정이 있었으며, 또한 근대 이전의 문화적 정체성이 바탕이 되었다.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로만 이해된다면, 근대 이전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민족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간과하기 쉽다. 모더니즘 계열에 대한 접근을 보완하고 있는 스미스(Smith 1998; 2009)가 민족주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민족주의 연구는 긴 호흡을 통해 근대라는 소용돌이에서 민족이라는 범주와 맥락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가 엘리트에 대한 접근이 주를 이루면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 특히 기층문화에 대한 측면이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이데올로기를 이끌었던 당시의 권력자들, 즉 엘리트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이는 민족주의를 단순히 근대국가의 통합적 성격과 정치적인 측면의 연구를 중시한 반면에 민족주의가 배태된 다양성과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간과한 원인이 되었다. 이는 웨이드(Wade 1997; 2000)도 지적하였는데, 그는 겔러(Gellner 1983)와 앤더슨(Anderson 1983), 홉스봄(Hobsbawm 1992)과 같은 모더니티 계열의 학자들이 민족주의를 동질적인 특성(homogeneity)으로 보면서 엘리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측면을 비판하면서 민족주의 연구가 각 국가내의 이종적인 특성(heterogeneity)과 위계, 민중 문화, 그와 관련된 전통적인 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민중문화와 전통은 기층문화와 맥을 같이하며, 라틴아메리카 기층문화의 역사는 바로 에스닉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에스닉을 통한 분석은 근대민족국가와 탈근대국가 상황 아래에서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를 역동적으로 살필 수 있다.

즉 민족주의 연구가 시간적으로는 ‘탈근대’를 넘어 장기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계급적으로는 ‘탈엘리트’적인 접근을 넘어 기층문화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마다의 상이하게 드러나는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앤더슨(Anderson 1983)도 지적했듯이, 유럽의 민족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그 역사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 유럽의 민족주의는 각 국가의 언어가 큰 역할을 했다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는 라틴아메리카가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 지역의 민족주의 특성과 다양성에 관한 접근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2) ‘매트릭스 민족주의’: 민족주의의 겹침과 충돌

모더니즘 계열에 입각한 민족주의 분석의 대안은 ‘엘리트 민족주의’ 극복, 즉 에스닉과 기층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기적인 분석(Wade 2000, Smith 2009, 이성형 2009) 등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분석이 더욱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적 상황을 이해할 도구가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일련의 유럽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는 에스닉과 근대 국가 시스템 사이의 충돌이다. 실제로 각 국가의 민족주의는 초국적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민족주의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또한 약화되는 듯하면서 강화되기도 한다.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는 아마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남미공동시장에 이르기까지, 경제공동체들은 각 국가 경계를 넘어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통합이 커녕 각 국가 혹은 에스닉 단위에서의 민족주의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를 경계로 하는 근대적 개념의 민족주의가 에스닉을 중심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거나 분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초국가주의 상황아래에서 민족주의 핵심은 바로 에스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21세기 민족주의’는 에스닉과 근대국가 시스템, 초국가주의(지역통합)이라는 세 개의 집단을 둘러싸고 중층적으로 복잡다단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민족주의 경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주의적 분석 방법을 필요로 한데, ‘매트릭스 민족주의(matrix nationalism)⁶⁾’는 그 단서를 제공해준다. 앞선 민족주의 연구들은 국가내에서 일어나는 민족주의 현상을 통시적, 즉 단선적으로 보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공간속에서 어떻게 모습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민족주의의 소스가 되는 기층문화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각 시간적, 시대적 공간에서 겹침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한 환경에서 그러한

6) ‘매트릭스 민족주의’는 톰 네언과 폴 제임스(2005)의 개념인 글로벌 매트릭스(Global Matrix)에서 차용한 것이다.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즉 ‘매트릭스 민족주의’는 시간과 공간을 겹쳐서 복잡다단한 민족주의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 그와 관련된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인 변수를 서로 교차시킴으로서 대상 지역에서 드러나는 민족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기타 에스닉들의 독립 요구는 시공간적으로 에스닉과 근대국민국가, 거대 경제공동체 사이의 수렴과 충돌사이에 빚어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현상에는 유럽연합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수민족주의(plurinacionalismo)는 유럽의 현상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체경제, 사회문화적 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수민족주의는 탈근대성과 다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내에 있는 다양한 에스닉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근대국가를 세울 무렵 아스텍 정체성에 입각하여 ‘메스티소 국민주의’(김세건 2005)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멕시코에는 아스텍을 건설한 나우아틀 원주민 이외에도 수십 개의 에스닉들이 존재하고 있다. 멕시코는 근대국가를 수립 과정에서 다른 에스닉들을 모조리 무시한 채 아스텍 정체성만을 부각시켰다. 사실 복수민족주의는 바로 이러한 근대 국가내에 포함된 다양한 에스닉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각 에스닉들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유럽의 에스닉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에스닉은 다양성을 인정받으면서 국가에 더욱 통합되는 모습은 왜일까? 이는 서구와 제 3세계의 민족주의가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민계급의 유산이었다. 근대국가 태동기에는 민족주의가 순기능을 했지만, 초국가주의라는 환경에서는 아주 구닥다리 시스템으로 전락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소위 크리오오(criollo)들이 엘리트로서 민족주의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국민 만들기를 위한 전략적인 대상으로 에스닉을 동원했을 뿐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인 에스닉의 소외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소위 좌파정부들은 민족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한 복수민족주의이다.

이 같은 사례는 서구와 비서구의 민족주의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비서구를 대표하는 소위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 민족 혹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은 신자유주의로부터 그들의 경제적 방어권을 무장해제 시키는 도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⁷⁾ 제 3세계 국가의 민족주의는 바로 초국가주의를 빙자한 신제국주의적인

7) 물론 비서구 사회, 제 3세계에서도 민족 혹은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국가 폭력 혹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수많은 소수자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 국가 폭력 및

성향을 띄는 종속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서 활발히 나타나는데,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여 보호무역과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방어기제인 것이다. 즉 민족주의는 그 지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각 국가의 민족주의가 그 지역의 문화가 시공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문제는 바로 지역연구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Ⅲ.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와 에스닉 문화의 동원

1. 근대국민국가 성립 단계: 19세기에서 20세기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 근대국민국가 설립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동원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도 근대적 영역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이와 같은 흐름을 주도한 학자는 바로 ‘상상의 공동체’를 저술한 베네딕트 앤더슨(1983)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크리오요(criollo)이 주도했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학설이다. 앤더슨류의 근대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 유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에스닉 문화가 민족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민족주의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근대국가를 세운 지배계층과 그들의 정책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크리오요들은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들의 독립을 주도했던 계층이었고, 이들은 독립 이후에도 근대국가를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과 원주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크리오요들이 독립 과정에서 이전의 역사, 문화적 산물, 즉 에스닉 문화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일까? 식민 시기이전의 원주민 문화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국가 경계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예컨대, 멕시코의 아스텍(나우아틀), 과테말라의 마야, 페루의 잉카(케추아),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파라과이의 과라니 등 각 국가를 대표하는 에스닉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상기의 에스닉들이 각 국가의 경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국가 형성 단계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하나의 국민 혹은

권력은 주로 군부나 독재 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칠레의 피노체트와 파라과이의 스트로에스네르, 과테말라의 소모사, 아르헨티나의 군부정권 등 수 없이 많다. 이들 정권의 특징은 미국에 의해 지원받거나 세운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나 민족 정체성을 남용한 사례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국주의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

민족 정체성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근대국민국가의 경계를 규정짓고 나아가 민족주의를 부각시킨 기저에는 바로 근대 이전부터 존재한 원주민 문화의 역할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원주민 유산은 비단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및 경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남아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복자들, 특히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주 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모두 통치할만한 행정가와 군인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주요 지역을 정복하였으며, 그 지역조차도 다스리기 버거웠다. 정복자들은 부족한 통치 역량을 원주민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주민 추장인 까시께(cacique)에게 지역의 통치를 위임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부 통치 제도는 원주민의 정치경제 시스템에서 빌려왔다. 예를 들어 레파르띠미엔토(repartimiento) 제도는 안데스의 잉카 원주민의 부여제도인 미따(mita)에서 응용한 것이다(Susnik 1982). 즉 스페인 정복자들은 때에 따라 각 원주민의 권역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부족한 통치 역량은 원주민의 인력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였다. 물론 다수의 원주민 집단들이 정복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원주민 집단에 통합되기도 하였으나, 원주민의 사회 및 정치경제 제도가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근대국민국가 성립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은 근대국민국가에서 주변적인 존재, 근대적이지 못한 존재로 묘사되어왔다. 이는 독립이후에도 잔존해있던 제국주의적 사고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끌었던 크리오요들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후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원주민에 대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바뀌긴 어려웠다. 예를 들어 크리오요들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원주민을 문화를 버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원주민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19세기 초에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원주민들 여전히 크리오요로 불리던 유럽계 백인들과 혼혈 인종인 메스티소(mestizo)에 의해 차별을 겪어야만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들이 원주민 정체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독립을 하고 거의 한 세기가 지날 무렵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공화주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할때 부터였다. 이 시기부터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에스닉 문화를 통원하여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성 극복을 위해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라틴아메리카의 원래 주인인 원주민이 주체가 되어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으로 당시의 사상에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 각 국가들은 원주민의 문화를 자랑스러운 유산으로서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를 국가통합의 기제로 활용하였다.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근대국민국가 건설에 방해가 된 다양한 인종적 스펙트럼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원주민 문화를 동원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원주민 언어 교육과 박물관 확충, 벽화운동, 문학 작품 등의 실제적인 행위로 드러났다.

‘원주민 문화 다시보기’는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의 민족주의, 즉 멕시코인과 브라질인과 같은 민족 통합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혼혈에 대해 다시보기’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멕시코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자 국립대 총장을 역임한 호세 바스콘셀로스(1925)는 우주적 인종(*la raza cosmica*)을 통해 혼혈인 메스티소에 대한 당연함과 우수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멕시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일반적인 현상인 인종과 문화적 섞임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함으로써 멕시코인이라는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주적 인종은 순혈주의, 특히 정복자들이었던 백인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논리와 그 동안 배격되었던 원주민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브라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질베르투 프레이리(1933)는 인종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백인과 흑인, 원주민이 모두 평등하게 섞인 브라질인이라는 민족 개념을 제시하였다. 인디헤니즘 운동과 ‘혼혈에 대해 다시보기’를 통한 근대국가 만들기는 바로 에스닉 문화라는 공통분모위에 존재하였다.

2. ‘21세기 민족주의’: 1990년대 이후

인디헤니즘을 바탕으로 한 국가 통합 정책은 1990년대를 전후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초국가주의의 영향에 의해 약화되었다. 이 시기의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자유무역 시스템에 조응하여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라틴아메리카를 지향하는 정치경제 공동체⁸⁾를 앞 다투어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들이 오히려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 기조를 폐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민족주의 열풍이 불게 된다. 이 민족주의는 소위 반미 제국주의를 기치로 한 좌파정부들이 자원민족주의 혹은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생겨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이 시기에 경제적 침체와 빈부 격차의 확대로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던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들은 통화 불안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또한 자유무역으로 인한 시장 개방으로 부의 불균형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민족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좌파 정부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부들은 가장 먼저 다국적 기업과 민간 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자원을 국유화하고 보호 무역을 강화하면서 소위 경제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8) 이러한 경제 통합체로는 1993년의 중미통합체제(SICA), 1995년의 카리브국가연합(ACS)과 남미공동 시장(Mercosur) 등이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1994년에 체결되었다.

자원민족주의라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는 비단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역으로 전도되어갔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가 코카콜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자국에서 생산된 코카 잎 음료만 유통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좌파 정부들은 자국의 에스닉적인 전통과 기층문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고자 민족 정체성을 끌어낼 수 있는 모티브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지 계승하고자 개별 원주민들의 언어와 문화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하였다. 복수민족주의(plurinacionalismo)는 한 국가내에 다수의 에스닉의 법적·문화적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 등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의 인디헤니슴과 달리 원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며, 그들의 삶과 행동이 사(死)문화 되지 않고 자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자원민족주의와 복수민족주의, 그 밖의 에스닉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 등, 민족주의의 범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는 그 모습이 다양하지만 하나의 지점에서 그 성격이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이전의 근대국가 발생 당시의 민족주의와 차별화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근대국민국가 건설 당시 에스닉 문화는 박물관 전시 혹은 교육의 대상으로 치환된 죽은 문화였으나, 최근의 에스닉 문화는 대중이 향유하고 공유하도록 함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살아 있는 문화로서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파라과이가 속한 남미공동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경제를 위해 국유화와 보호무역강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⁹⁾ 이는 파라과이도 마찬가지로 인데, 4개월 전에 탄핵 당한 루고 전 대통령은 인근 국가에 공급하는 전력의 '제값 받기'를 취임 당시부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파라과이는 경제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동원한 것이 바로 에스닉 문화이다.

특히 페르난도 루고의 집권¹⁰⁾은 소위 '좌파 민족주의'라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파라과이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대안으로 과라니 문화가 적극적으로

9)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2년 6월 22일 벌어진 루고 대통령 탄핵을 반민주적인 절차로 규정짓고 파라과이의 회원국 지위를 2013년 4월까지 정지시켰다.

10)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의 대통령 당선은 파라과이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루고는 61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파라과이 최초의 문민 좌파 정권(파라과이 최초 좌파정부는 1936~1937년 집권한 2월혁명당의 라파엘 프랑코 장군 집권시기)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치사적 의미를 떠나 사제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 또한 루고는 '빈자의 아버지'답게 농지개혁과 의료 및 빈민 복지에 치중했으며, 그리고 루고는 각각 이따이뿌덤과 자시레따덤에서 생산되는 전기 수출 가격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적정선으로 올려 받는 등의 주변의 강국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수용되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였고, 독립 200주년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은 한층 더 민족주의 정책에 탄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과라니 민족주의’를 표면화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서 파라과이는 과라니 원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요소를 법제화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국외적으로도 파라과이 정부는 과라니 문화가 파라과이 고유의 문화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정책의 성과는 파라과이는 언어와 음식, 예술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과라니 문화가 파라과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먼저 파라과이 정부는 과라니어의 국제적 공인과 보존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과라니어의 경우는 이미 1967년 민족어(idioma nacional)로 공표되어 매년 8월25일을 과라니어의 날(Día del idioma Guaraní)로 지정되었고, 1992년에는 스페인어와 동등하게 공식 언어(lengua oficial)로 헌법상에 명시되었다(Zuccolillo 2002). 파라과이는 인접국가들로부터 과라니어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남미공동시장에 공식 언어 지정을 요청하였고, 2009년에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함께 남미공동시장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2010년에는 파라과이 의회에서 “언어법(Ley de Lenguas)”을 제정하여 과라니어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을 설립하였다.¹¹⁾

파라과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과라니 원주민에서 기원한 음료와 음악을 파라과이 문화유산으로 법제화하였다. 그 중 하나인 페레레는 파라과이의 전통 음료로서 과라니 원주민이 즐겨 마시던 마떼(mate)에서 기원한 것이다. 페레레 법(Ley de tereré)은 파라과이 의회에서 2010년 1월에 통과되었다.¹²⁾ 같은 해 6월에는 파라과이 하프(Arpa Paraguaya)가 민족음악의 상징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¹³⁾

파라과이의 대표적인 기층문화인 과라니어와 음료(페레레), 음악(과라니아, 파라과이 하프) 등, 일상영역에서 공유되던 에스닉 문화의 법제화는 대중들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을 공식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IV. 민족주의와 지역통합, 에스닉 문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는 신자유주의와 초국가주의라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민족주의가 약화될 것이라 예상되었다. 특히 이러한 논의들은 1990년대 중반

11) 출처: <http://www.cultura.gov.py/tipolegal/leyes/> (검색일 2016.10.11)

12) 출처: <http://www.cultura.gov.py/tipolegal/leyes/> (검색일 2016.10.11)

13) 출처: <http://www.cultura.gov.py/tipolegal/leyes/> (검색일 2016.10.11)

무렵부터 본격화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통합, 즉 지역통합이 본격화되면서 힘을 얻어 갔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지역통합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등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통합을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배로 인식하면서 대안적인 지역 통합체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에 탄생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남미국가연합(Unasur),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등이 결성되었다. 이들 지역통합체들은 좌파정권을 중심으로 반미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지향하였다. 또한 개별 국가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자원국유화와 공기업의 강화를 통한 분배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에서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인 파라과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인접 국가들의 태도에 따라 민족주의를 강화하는데, 특히 2008년 좌파 정부인 루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더욱 가속화된다. 파라과이는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모티브로서 과라니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유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제도화하였는데 힘을 기울인다. 즉 이러한 민족주의 강화 현상은 라틴아메리카적 초국가주의, 즉 라틴아메리카적 지역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등장한 것이며 특히 파라과이에서는 과라니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라니 문화는 역사적으로 파라과이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의 기능을 했지만, 최근 들어 주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지방정부들도 과라니 문화를 그들 문화 정체성을 제도화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국의 문화를 하나의 경제적 자원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서로가 그 문화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다. 국가내의 각 종족과 민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복수민족주의의 등장은 남미공동시장내에서 과라니 문화를 둘러싼 첨예한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자국내의 다양한 원주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과라니에 대한 공용언어지정 및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꼬리엔테스(Corrientes) 주와 브라질 마또 그로소 델 수르(Matto Grosso del Sur)의 따꾸루(Tacuru)시는 각각 2005년과 2010년에 과라니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였다. 또한 남미공동시장도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함께 과라니어를 지역 통합체를 대표하는 공식 소통언어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상황은 파라과이가 민족주의 정책으로서 과라니 문화의 파라과이화를 가속화시켰다.

과라니 문화를 두고 역내 국가간의 갈등이 극대화된 것은 떼레레¹⁴⁾라 불리는 음료

14) 떼레레(Terera)¹⁾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료로서 마떼(mate)에서 기원한 것이다. 떼레레는 마떼와 거의 유사하지만 얼음을 넣은 차가운 물로 마시는 특징이 있다. 마떼는 뜨거운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마시며 파라과이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브라질 남부지역에서 음용한다. 하지만 떼레레는 파라과이에서 주로 마시며, 파라과이에 영향을 받은 인근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때문이었다. 페레레는 마테와 달리 주로 파라과이에서 음용하는데, 브라질의 한 주인 마토 그로소 델 수르(Mato Grosso del Sur)¹⁵⁾에서 페레레를 역사문화 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파라과이에서 크게 반발을 하였다. 아래 문구는 이 시기에 파라과이 웹상에서 유행하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씹새끼야!!!’, 페레레는 파라과이 것이다.

페레레는 진정으로 파라과이 것이야. 브라질애들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들고 갈려고 하네. 절대로 절대로 결코 결코 가져갈 수 없어 파라과이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야!¹⁶⁾

‘씹 새끼야!!!’라는 부분은 스페인어가 아닌 아냐 념브(aña memby)라는 과라니어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민족어에 해당하는 과라니어로 처리함으로써 민족의식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이 문구와 함께 같이 떠돌던 삽화도 브라질에서 페레레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삽화는 두 남자가 페레레를 마시면서 브라질 국기 디자인의 비키니를 입혀 흑인 여성처럼 꾸민 페레레 콤파가 걷는 것¹⁷⁾을 보고 “저것이 브라질에서 등재한 페레레 맞어?”라면서 마치 진짜 페레레가 아니라는 듯이 의문스럽게 묻고 있다. 왼쪽 삽화는

브라질에서 일부 음용하기도 한다.

15) 마토 그로소 델 수르는 파라과이 동쪽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데, 이 주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이민자의 교류가 빈번한 지역(Riquelme 2005)으로 파라과이의 페레레가 전파되어 음용되고 있는 곳이다.

16) 출처: <https://nicoespinosa.com/2010/08/13/el-terere-es-paraguay-pe-ana-memby/> (검색일 2016.9.25)

17) 콤파(guampa)는 페레레 마시는 잔을 말한다.

두 파라과이 남자가 “진짜 브라질 페레레야? 까이삐리냐(caipirinha)가 들어있네”라면서 맛이 이상하다는 듯이 마신 것을 뵈고 있다. 까이피리냐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칵테일인데, 브라질 페레레에는 까이삐리냐가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원조가 아님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두 삽화에는 브라질이 남의 문화를 도용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가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파라과이 의회에서는 페레레를 공식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게 된다.

페레레는 파라과의 문화유산이며, 우리 국가의 공식음료이다. 매년 2월 마지막은 페레레의 날입니다. 앞으로 페레레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파라과이 하원의원).¹⁸⁾

파라과이 의회는 법률 4261/2011에 의거하여 페레레를 파라과이 민족 음료이자 문화유산으로 선포하였다. 이 법은 상하원에서 2010년 11월 18일에 승인하여 헌법 207조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에 비준되었다. 이 법의 2항을 보면 “국가 정체성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2월 마지막 토요일을 “페레레의 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3항에는 “대통령 산하 문화비서실은 국내외적으로 페레레를 확산하고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파라과이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중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마토 그로소 델 수르 주도 2011년에 페레레를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파라과이는 과라니가 파라과이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과라니의 분포지역은 파라과이의 국가 경계 영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과라니의 거주지역이나 문화권은 파라과이를 넘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일부 지역에 걸쳐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과라니가 소수민족에 지나지 않지만, 파라과이에서는 과라니가 주요 원주민 종족이며, 과라니어를 대부분의 국민들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파라과이가 과라니의 원류 혹은 과라니의 적통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국가내의 다양한 종족 혹은 민족, 지방 정부의 이해관계로 표출되거나, 클래식하게 국가 경계를 중심으로 더 강화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주의의 표출 방식의 공통점은 기층문화, 즉 원주민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18) 출처: <http://www.hoy.com.py/nacionales/dia-nacional-del-terere-en-paraguay> (검색일 2016.9.25)

V. 결론

본 연구는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라는 흐름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스닉의 부활과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기층문화, 특히 에스닉 문화가 근대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 강화 현상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팽배한 민족주의 강화 정책과 원주민 문화의 관련성은 파라과이 사례를 통해 기술했다. 또한 민족주의 연구가 현재의 라틴아메리카와 파라과이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 특히 파라과이 사례를 통해 민족주의가 국가간의 문제를 넘어 초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사실 민족주의 연구의 주류였던 모더니즘 계열의 논의들은 시기적으로 근대, 계층적으로 엘리트, 국가 영역에 제한되어 있어 21세기에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민족주의 양상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에스닉과 기층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기적인 분석, '매트릭스 민족주의'를 제안하였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의 반대급부로서 에스닉을 통한 정체성 찾기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각 국가의 민족주의는 초국적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민족주의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며 약화되는 듯 강화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남미공동시장에 이르기까지, 경제공동체들은 각 국가 간의 민족주의 넘어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통합은 커녕 각 국가 혹은 에스닉 단위에서의 민족주의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로 세계화 가운데서 국가 경계에 바탕을 둔 근대적 개념의 민족주의가 에스닉을 중심으로 확대되거나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에스닉과 근대국가 시스템, 초국가주의에 입각한 지역 공동체라는 세 개의 집단을 둘러싸고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주의의 소스가 되는 에스닉 문화의 정체성은 시공간에서 끊임없이 겹침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파라과이와 남미공동시장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는 에스닉에 의해 국가와 지역 통합이라는 환경을 둘러싸고 각 집단 간의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적 민족주의가 재탄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김세건. 2005. 메스피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과 민족. 아카넷, 213-249.
- 이성형. 2009.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 - 벽화 국민음악 축구를 통해 본 정체성 정치. 길.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Verso.
- Areces, Nidia. 2007. Estado y Frontera en el Paraguay. CEADUC.
- Canclini. 1990.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Ddbolsillo.
- Dorson, Richard. 1973. Folklore and traditional history. The Hague.
- Freyre, Gilberto. 1933. Casa-grande y senzala.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 Godoy, Lucio. 2004. Reseña histórica del idioma guaraní. Suplemento Antropologico 34(1), 247-273.
- Hobsbawm, E.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rin & James. 2005. Global Matrix: Nationalism, Globalism and State-Terrorism. Pluto Press.
- Riquelme, Marcial. 2005. Notas para El Estudio de las Causas y Efectos de Las Migraciones Brasileña en el Paraguay. en Fogel, Ramón y Marcial Riquelme, Enclave sojero, merma de soberanía y pobreza, Centro de Estudios Rurales Interdiscipinarios, 113~140.
- Smith, Anthony. 1998. Nationalism and Modernism. Routledge.
- _____ 2009. Ethno-symbolism and Nationalism: A cultural approach. Routledge.
- Susnik, Branislava. 1982. El rol de los indíenas en formació y en la vivencia del Paraguay I. IPEN.

- Vasconcelos, J. 1925. La Raza Cósmica: Misión de la raza iberoamericana. Agencia Mundial de Librería.
- Wade, Peter. 1997.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Pluto Press.
- _____. 2000. Music, Race, and Nation: Música Tropical in Colombi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uccolillo, Gabriela. 2002. Lengua y Nación: el rol de las élites morales en la oficialización del guaraní Paraguay. Suplemento Antropologico 37(2), 9-308.

● 투고일: 2016.11. 1. ● 심사일: 2016.11. 1. ● 게재확정일: 2016.11.11.

| Abstract |

**Regional integration, nationalism and ethnic culture
in Latin America
- A case of Paraguay -**

Gu, Gyoungm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of Paraguay by the Guarani Culture(Ethnic Culture). According to the modernists, nationalism has been created by the 'elite' class during modern times. Modernists analyze only the elites of modern time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in Latin America. However,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case of Paraguay is different compared to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Paraguay is the only country that uses an indigenous language as an everyday language and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tate. Th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of Paraguay were not the elites but indigenous. Paraguay only has a very small and marginalized indigenous population, Guarani and not Spanish remains the language of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The experience of conflict, in particular international conflic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in shaping its politics, culture, development, and identity. These interrelated factors have provided a strong sense of difference from regional neighbors.

〈Key words〉 nationalism, Latin America, ethnic culture, Paraguay, Guarani